

INSIGHT 통합사회1 해설 정오표

페이지	유형	수정 내용
11p 8번	수정	④ 정념 → 감정 스토아학파 에픽테토스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념을 초월해야 한다고 봄, 모든 감정 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.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같은 자연적인 감정 은 인정된다고 주장함
17p 1번	삭제	② ‘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봄’ 부분 삭제
20p 9번	추가	⑤ 소크라테스와 에피쿠로스 모두 유덕함을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았으며, 소크라테스 는 덕이 곧 행복이라고 봄
43p 24번	수정	ㄴ. 따라서 냉대 겨울 건조 기후 (나) 이르쿠츠크
62p 32번	수정	ㄹ. 선지 칸트는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 를 지녔다고 보고
64p 36번	추가	ㄴ. 선지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레오폴드와 테일러, 싱어 의 공통 입장임. 레오폴드는 개체보다 생명 공동체를 중시하는 전체론적 입장, 테일러와 싱어 는 개체론적 입장임.
66p 40번	변경	ㄹ. 선지 ‘인간이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다’는 것은 칸트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음 .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함과 동시에 인격적으로 존중, 목적으로 대하라고 함. 따라서 인간이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인간인 경우, 도덕적 주체(도덕적 행위 주체)가 될 수 있음